

국 어



| | | | |
|---|----|----|--|
| 반 | 번호 | 이름 | |
| | | | |

【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앞부분 줄거리] 전라도 남원 고을 사또의 아들 이몽룡은 광한루에 올랐다가 춘향이가 그네 뛰는 모습을 보고 반한다.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사랑을 약속한다. 그러던 어느 날 이몽룡은 아버지를 따라 한양으로 떠나게 된다. ㉠이몽룡은 춘향에게 과거에 급제한 후에 꼭 데리러 오겠다고 맹세한다. 이후 남원의 사또 자리에 변학도라는 자가 새로 부임하는데, 탐관오리인 그는 춘향에게 수청을 들라 명한다. 이를 거절한 춘향이는 모진 고문을 당하고 옥에 갇힌다. 한편 과거에 급제한 이몽룡은 암행어사가 되어 거지 행색을 한 채 남원으로 온다.

(나) “어떤 놈이 잔치를 망치는고? 저 미친놈을 멀리 쫓아내라.”
그러나 어사또는 기둥을 꼭 끌어안고 도무지 떨어지지 않을 않았다.
“사또께서 가라 하지 않소. 불호령을 내리시기 전에 빨리 가요.”
“잔치에 온 개도 고깃집 하나는 얻어먹는 법이거늘 빈손으로 가라니 당치 않소. 나는 못 가요.”
거지를 유심히 살펴보던 ㉡운봉 수령이 사또에 고하였다.
“사또, 저 거지 행색은 누추하나 양반인 듯하니 술이나 대접하여 보냄이 어떻겠습니까?”

(다) 이윽고 찾상이 들어오는데 손님마다 각각 한 상을 받았으나 어사또 앞에는 과일 한 접시 놓이지 않았다. 운봉 수령이 민망하여 하인을 불렀다.
“이리 오너라! 이 양반 상 차려다 드려라.”
그제야 어사또 앞에 상을 차려 놓는데, 누가 먹다 남긴 갈비에 콩나물 대가리 한 접시, 멸치 꼬리 한 접시, 막걸리 한 사발이 전부였다. 어사또는 살만 남은 부채를 거꾸로 쥐고는 운봉 수령의 옆구리를 쿡쿡 찔렀다.
“여보, 운봉.”
느닷없이 옆구리를 찌르는 바람에 운봉 수령이 깜짝 놀라 대답하였다.
“아이고, 왜 이러시오?”
“나 갈비 한 대 주시오.”

(라) ‘저놈이 양반의 자식은 분명한 모양인데 저렇게 버릇없는 것을 보니 글공부를 했을 리 없다. 시나 짓자고 해서 쫓아내야지.’
변 사또는 흐흠, 헛기침을 해서 주목을 끈 다음 말하였다.

“우리 글이나 한 수씩 지읍시다. 글을 못 짓는 사람은 큰 벌을 내릴 것이니 잘 생각해서 좋은 시들을 지어 보오.”
다들 머릿속으로 시상을 가다듬고 있는 중에 어사또가 앞으로 나왔으며 말하였다.
“나도 부모님 덕으로 글자는 익혔으니 잘 먹은 값으로 글이나 한 수 짓겠소.”

(마) 대체 뭐라 썼는지 궁금하여 ㉢어사또가 남긴 시를 읽던 운봉 수령의 얼굴이 갑자기 하얗게 질렸다.

금동이의 맛있는 술은 만백성의 피요,
옥소반의 좋은 안주는 만백성의 기름이라.
촛불 눈물 떨어질 때 백성 눈물 떨어지고,
노랫소리 높은 곳에 원망 소리 드높다.

1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 ① 판소리계 소설에 해당한다.
- ② 작가 미상의 고전 소설이다.
- ③ 우연적으로 사건이 전개된다.
- ④ 주인공이 서술자가 되어 이야기를 전달한다.
- ⑤ 소설을 향유한 사람들의 가치관과 소망이 담겨 있다.

2 (나)에서 ‘어사또’가 걸인 행세를 하는 까닭으로 알맞은 것은?

- ① 변 사또의 생일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 ② 변 사또 몰래 춘향이를 구해 내기 위해서
- ③ 술과 먹을거리를 더 많이 얻어 내기 위해서
- ④ 하인들과 거리낌 없이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 ⑤ 자신의 신분이 암행어사라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기가 막힌 춘향이가 고개를 번쩍 들고,
“초록은 동색이요, 가재는 게 편이라더니 내려오는 사
또마다 빠짐없이 명판이로구나.”
한탄하며 말을 이었다.
“어사또는 들으시오. [A]절벽 위에 우뚝 솟은 높은
바위 바람 분들 무너지며, 사시사철 푸른 소나무 눈이
온들 비가 온들 변하리까? 틀린 소리 마옵시고 어서
바빠 죽여 주소.”

(마) “춘향이는 고개를 들라.”

그제야 춘향이가 번쩍 고개를 들었다. 동헌 마루에 높이 앉은 어사또는 어제 저녁 옥문 밖에 왔던 낭군이 분명하였다. 꿈인가 생시인가. 물끄러미 어사또를 바라보는 춘향이 눈에 구슬 같은 눈물이 서려 옷깃을 적시며 조용히 흘러내렸다.

7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부분을 본문에서 찾아 쓰시오.

〈보기〉

춘향이가 어사또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반대로 표현하여
그 뜻을 더욱 강조하고 있는 부분

$$(\quad)$$

8 ㉠~㉤의 뜻풀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다른 곳에 있는 사람에게 소식을 전함.
- ② ㉡: 주의를 집중하여 살펴봄.
- ③ ㉢: 떨어지거나 넘어져서 다침.
- ④ ㉣: 암행어사가 자기의 신분을 밝힘.
- ⑤ ㉤: 똑바로 못 볼 정도로 당황스러운 풍경.

9 이 소설에서 비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 ① 탐관오리들의 부패한 행태
- ② 겉보기만을 중시하는 허례허식
- ③ 운명에 순응하는 수동적인 태도
- ④ 개인의 사랑을 가로막는 신분 제도
- ⑤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못하는 백성들의 나약성

10 (마)를 통해 알 수 있는 고전 소설의 특징은?

- ① 행복한 결말로 끝맺는다.

- ② 사건이 우연적으로 전개된다.
③ 비현실적인 내용이 주를 이룬다.
④ 시간적, 공간적 배경이 구체적이지 않다.
⑤ 역사적 사건을 바탕으로 이야기가 구성된다.

서술형

11 ‘춘향이’가 ‘어사또’에게 [A]와 같이 말을 한 이유는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12 (가)~(다)의 내용을 당시 백성들이 읽었다고 가정했을 때, 예상되는 반응으로 알맞은 것은?

- ① 지배층의 분노에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다.
- ② 비현실적인 장면에 허탈감을 느꼈을 것이다.
- ③ 답답했던 마음이 풀리는 통쾌함을 느꼈을 것이다.
- ④ 사회적 근간이 흔들리는 불안감을 느꼈을 것이다.
- ⑤ 지배층끼리 싸우는 모습을 한심하게 여겼을 것이다.

서술형

13 <보기>의 대화를 참고하여, (가)~(다)에 사용된 표현법의 특징을 서술하시오.

〈보 기〉

지훈: 소설의 장면을 상상하며 읽으니 정말 재미있었어.

민아: 특히 구례 현감이 말을 거꾸로 타고 채찍질을 하는
부분은 정말 우스꽝스러웠어.

미호: 나는 변 사또가 바지에 똥을 싸서 엉겁결에 내실로 뛰어 들어가는 장면이 가장 재미있었어.

진수: 탐관오리들이 어사또 출또 소리에 혼비백산하는 장면을 과장되게 표현한 거겠지.

【14~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앞부분 줄거리] 전라도 남원 고을 사또의 아들 이몽룡은 광한루에 올랐다가 춘향이가 그네 뛰는 모습을 보고 반한다.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사랑을 약속한다. 그러던 어느 날 이몽룡은 아버지를 따라 한양으로 떠나게 된다. 이몽룡은 춘향에게 과거에 급제한 후에 꼭 데리러 오겠다고 맹세한다. 이후 남원의 사또 자리에 변학도라는 자가 새로 부임하는데, 탐관오리인 그는 춘향에게 수청을 들라 명한다. 이를 거절한 춘향이는 모진 고문을 당하고 옥에 갇힌다. 한편 과거에 급제한 이몽룡은 암행어사가 되어 거지 행색을 한 채 남원으로 온다.

(나) “여봐라. 사또께 아뢰어라. 먼 데서 온 걸인이 좋은 잔치를 만났으니 음식이나 좀 얻어먹자고 여쭙어라.”
거지꼴의 어사또가 문전에서 사령과 옥신각신하는데, 사령이 아될 것도 없이 그 소리 들은 사또가 버럭 성을 내어 소리쳤다.

㉠“어떤 놈이 잔치를 망치는고? 저 미친놈을 멀리 쫓아내라.”

그러나 어사또는 기둥을 꼭 끌어안고 도무지 떨어지지 않을 않았다.

“사또께서 가라 하지 않소. 불호령을 내리시기 전에 빨리 가요.”

“잔치에 온 개도 고깃점 하나는 얻어먹는 법이거늘 빈손으로 가라니 당치 않소. 나는 못 가요.”

거지를 유심히 살펴보던 운봉 수령이 사또에게 고하였다.

㉡“사또, 저 거지 행색은 누추하나 양반인 듯하니 술이나 대접하여 보냄이 어떻겠습니까?”

(다) 이윽고 찻상이 들어오는데 손님마다 각각 한 상을 받았으나 어사또 앞에는 과일 한 접시 놓이지 않았다. 운봉 수령이 민망하여 하인을 불렀다.

“이리 오너라! 이 양반 상 차려다 드러라.”

그제야 어사또 앞에 상을 차려 놓는데, 누가 먹다 남긴 갈비에 콩나물 대가리 한 접시, 멸치 꼬리 한 접시, 막걸리 한 사발이 전부였다. 어사또는 살만 남은 부채를 거꾸로 쥐고는 운봉 수령의 옆구리를 쿡쿡 찔렀다.

“여보, 운봉.”

느닷없이 옆구리를 찌르는 바람에 운봉 수령이 깜짝 놀라 대답하였다.

“아이고, 왜 이러시오?”

“나 갈비 한 대 주시오.”

“갈비를 달랄 것이면 말로 하지 왜 남의 갈비는 쿡쿡 찌르는 것이오?”

수령이 하인을 불러,

“이 갈비를 가져다 저 양반에게 드러라.”

하고 일렀다.

14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 ① 서술자는 작품 내부에 존재한다.
- ② 당시 사회적 상황이 반영되어 있다.
- ③ 해학과 풍자를 통해 재미를 유발한다.
- ④ 대화와 행동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된다.
- ⑤ 판소리 사설 ‘춘향가’에서 발전한 소설이다.

15 ㉠과 ㉡에 대해 바르게 이해한 사람은?

- ① 수민: ㉠으로 보아, 사또는 조용하고 진지한 분위기를 좋아하는 사람인 것 같아.
- ② 정민: ㉠으로 보아, 사또는 상황 판단력과 사리 분별력이 뛰어난 사람인 것 같아.
- ③ 소민: ㉠으로 보아, 사또는 사람의 외양보다 내면을 중시하는 사람인 것 같아.
- ④ 상민: ㉡으로 보아, 운봉은 눈치가 빠른 사람인 것 같아.
- ⑤ 영민: ㉡으로 보아, 운봉은윗사람의 비위를 잘 맞추며 아부를 잘하는 사람인 것 같아.

16 (가)를 통해 짐작할 수 있는 이 소설의 중심 내용으로 알맞은 것을 모두 고르면? (정답 2개)

- ① 권력의 허무함
- ② 신분을 초월한 사랑
- ③ 여성의 낮은 사회적 지위
- ④ 조선 시대 신분 제도의 모순
- ⑤ 불의한 지배 계층에 대한 비판

17 (다)의 ‘어사또’와 ‘운봉 수령’의 대화에 드러난 표현상의 특징으로 알맞은 것은?

- ① 속마음과 반대되는 뜻의 말을 하고 있다.
- ② 언어유희를 통해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다.
- ③ 상대방의 행동을 노골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 ④ 서술자가 개입하여 인물의 심리를 설명해 주고 있다.
- ⑤ 거칠고 투박한 평민들의 일상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18~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다들 머릿속으로 시상을 가다듬고 있는 중에 ㉠어사또가 앞으로 나앉으며 말하였다.

“나도 부모님 덕으로 글자는 익혔으니 잘 먹은 값으로 글이나 한 수 짓겠소.”

운봉이 붓과 먹을 건넸다. 다른 사람들이 붓을 들기

도 전에 어사또는 순식간에 몇 자 끼적이고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먼 데서 온 거지가 오랜만에 술과 고기를 포식하였으니 이 은혜 잊지 않겠소. 나중에 다시 봅시다.”

변 사또는 저놈이 시를 못 지으니까 미리 꼬리를 사리는 것이라 여기고 어서 빨리 가라는 뜻으로 손을 휘휘 내저었다.

(나) 대체 뭐라 썼는지 궁금하여 어사또가 남긴 시를 읽던 ㉡운봉 수령의 얼굴이 갑자기 하얗게 질렸다.

금동이의 맛있는 술은 만백성의 피요,
옥소반의 좋은 안주는 만백성의 기름이라.
촛불 눈물 떨어질 때 백성 눈물 떨어지고,
노랫소리 높은 곳에 원망 소리 드높다.

(다) “암행어사 출또요!”

누군가 우렁우렁 외치는 소리에 강산이 무너지고 천지가 들끓는 듯, 하늘에 떠 있는 해도 잠깐 발을 머무르고, 공중에 나는 새도 잠깐 날지 못하여 푸덕푸덕 떨어졌다. 남문에서 “출또요.”, 북문에서 “출또요.”, 출또소리 천지에 진동하고, 좌수, 별감 녀을 잃고, 각 읍 수령 도망칠 때 그 거동이 장관이었다. 임실 현감은 하도 급해서 갓을 거꾸로 뒤집어 쓰고는,

“여보아라, 어느 놈이 갓 구멍을 막았구나.”

소리치자 누군가,

“갓을 뒤집어 썼소.”

“아따, 언제 바로 쓸 새 있더냐. 좀 눌러 다오.”

하여 ㉢그대로 짝 누르니 갓이 벌럭 뒤집혔다. 겨우 갓을 쓰고 나서 오줌을 누다는 것이 그만 칼집을 쥐고 누니, 오줌 맞은 하인들이

“허, 요새는 하늘이 비를 따뜻하게 덥혀서 내리는 모양 일세.”

하며 갈팡질팡하였다.

(라) ㉣구례 현감은 말을 거꾸로 타고 채찍질을 하니 말이 뒤로 달아났다.

“허, 이 말이 웬일이냐? 본래 목이 없느냐?”

“거꾸로 타셨소. 내려서 바로 타시오.”

“어느 겨를에 바로 타겠느냐! 목을 빼어다가 말 똥구멍에 박아라.”

변 사또는 정신이 아득하여 바지에 똥을 싸서 엉겁결에 내실로 뛰어들며 소리쳤다.

“어, 춥다. 문 들어온다, 바람 닫아라. 물 마르다, 목 들여라.”

이때에 나졸들이 벌 떼같이 달려들어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함부로 둘러치니 부서지는 것은 거문고요, 깨지는 것은 북이었다. 교자상도 부러지고 찻상도 넘어지고 이런 야단법석이 없었다.

(마) 춘향이는 죽은 듯이 엎드려 있는데, 가는 목에 큰칼 차고 곱던 머리 산발하고 옷자락에는 붉은 핏물 얼룩지

고 ㉤그 참혹한 광경은 두 눈 뜨고 차마 보지 못할 지경이었다. 어사또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혹 남에게 들킬세라 부채로 얼굴을 가린 채 물었다.

“분부 들어라. 너는 기생으로서 관의 명령을 어기고 발악하였으니 살기를 바랄쏘냐? 죽어 마땅하나 내 수청을 듣다면 목숨은 살려 주마.”

기가 막힌 춘향이가 고개를 번쩍 들고,

“초록은 동색이요, 가재는 게 편이라더니 내려오는 사또마다 빠짐없이 명관이로구나.”

한탄하며 말을 이었다.

“어사또는 들으시오. ㉥절벽 위에 우뚝 솟은 높은 바위 바람 분들 무너지며, 사시사철 푸른 소나무 눈이 온들 비가 온들 변하리까? 틀린 소리 마옵시고 어서 바빠 죽여 주소.”

18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 ① 주된 향유 계층이었던 양반의 언어를 바탕으로 기술된다.
- ② 역사 속 실존 인물의 삶을 재구성하여 사실성이 돋보인다.
- ③ 인물 간의 대화와 장면 묘사를 통해 내용이 생생하게 전개된다.
- ④ 당시 사회 상황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사건이 전개된다.
- ⑤ 작품 안의 인물에 의해 사건이 서술되어 인물의 심리가 자세하게 전달된다.

19 ㉥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 ① 상대방에 대한 호감을 보여 주고 있다.
- ② 자신의 감정을 진솔하게 드러내고 있다.
- ③ 말하고자 하는 바를 반대로 표현하고 있다.
- ④ 말장난을 통해 극적 긴장감이 해소되고 있다.
- ⑤ 은혜를 잊지 않는 인물의 성품을 보여 주고 있다.

서술형

20 (나)에 제시된 ‘어사또가 남긴 시’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주제)가 무엇인지 쓰시오.

21 ㉠~㉥ 중,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보기〉

서술자가 작품에 직접 개입하여 인물이나 상황에 대해 평가
거나 서술자의 의견을 제시함.

- ① a ② b ③ c ④ d ⑤ e

22 (다)~(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 ① 극적인 상황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 ② 대화를 통해 상황의 비극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③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하여 풍자하고 있다.
- ④ 서술자가 인물에 대해 직접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 ⑤ 절제된 표현을 통해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23 <보기>의 시에 사용된 표현법과 동일한 표현이 사용된 부분을 (마)에서 찾아 쓰시오.

<보 기>

내 그대를 생각함은 항상 그대가 앉아 있는 배경에서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사소한 일일 것이나 언젠가 그대가 한없이 괴로움 속을 헤매일 때에 오랫동안 전해 오던 그 사소함으로 그대를 불러 보리라.

- 황동규 「즐거운 편지」

$$(\quad)$$

24 (마)를 통해 알 수 있는 ‘춘향이’의 성격으로 알맞은 것은?

- ① 눈물이 많고 마음이 여린 인물이다.
- ② 고집이 세고 융통성이 없는 인물이다.
- ③ 상황에 따라 성격이 변하는 입체적인 인물이다.
- ④ 현실에 순응하는 소극적인 태도를 가진 인물이다.
- ⑤ 시련과 고난에 굴하지 않는 의지가 강한 인물이다.

서술형

25 <보기>를 참고하여, 당시의 백성들이 (다)~(라)의 암행
어사 출도 장면을 보며 어떤 감정을 느꼈을지 서술하십시오.
(단, 이유를 함께 밝혀 적을 것)

〈보기〉

당시에는 지배층들이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하여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탐욕이 많고 부정을 일삼는 벼슬아치들이 많아, 백성들의 재물을 탐내어 빼앗는 행실이 깨끗하지 못한 관리들이 많았는데, 이런 자들을 ‘탐관오리’라고 일컫는다.

26 (마)에서 ‘춘향이’가 말한 ㉠에서,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는 말을 모두 찾아 쓰시오.

$$(\quad)$$